자력으로 흥하는 나라

《공화국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수 있었다. 공화국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자기의 위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건설신화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그 어떤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도 없이 순수 자기 힘으로 발전해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화국이 내세우고있는 자력갱생은 정말로 성공적이다.》

《…서방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목격하였다. 즐비하게 일떠선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 인민을 위한 문화휴식터 등 보는것마다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누구나 조선을 알려면 이 나라에 와보아야 한다. 자력으로 비약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은 참으로 신비로운 나라이다.》…

이것은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굳건하며 자력으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의 경탄의 목소리이다.

국제사회계가 평하고있듯이 공화국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모든것을 창조하며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있다.

공화국의 력사는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모든 난관을 뚫고헤치며 자기의 행로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긍지높은 력사이다.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은 공화국인민은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서 자력갱생의 마치소리를 높이 울리며 삶의 터전을 보란듯이 일떠세웠고 자력으로 천리마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기양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단 35일만에 만들어낸 《천리마》호뜨락또르, 덕천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40일만에 만들어낸 《승리-58》형화물자동차, 몇년이 걸려야 한다던 해주-하성사이철길공사를 75일동안에 끝낸 기적적승리…

이렇듯 공화국인민은 력사의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언제나 자력갱생으로 맞받아뚫고나갔다.

자력갱생의 위대한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공화국의 국력과 존엄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우주로 날아오른 인공지구위성들, 땅속에서도 땅우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지하전동차와 자동차, 뜨락또르, 궤도전차, 무궤도전차들이 달리는 현실, 양덕땅의 천지개벽이며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으로 전변된 삼지연시의 자랑스러운 모습…

불리한 자연조건을 이겨내고 황금나락을 펼친 드넓은 전야를 바라보아도, 인민의 리상거리가 하루가 다르게 웅장한 자태를 펼치고있는 송신, 송화지구를 비롯한 살림집건설장들의 거세찬 숨결을 대할 때에도, 생산활성화의 동음높은 공장, 기업소들에 가보아도 가슴후덥게 안겨오는것이 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투철한 신조를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있는 공화국인민의 불같은 투쟁열이다.

오늘날 세계를 둘러보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남의 도움으로 경제적발전을 이룩하려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기것이 없는 경제적장성은 한갓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공화국인민들은 모든것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자력으로 흥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겠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을 안고 이 땅우에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우고있다.

년대와 세기를 이으며 줄기차게 달려온 공화국의 투쟁력사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갱생에 민족의 번영이 있다는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기적을 창조해가는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공화국인민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이 땅우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 춘 경

심각한 해외기술의존도, 외국기업들의 배만 불리워

남조선언론에 의하면 남조선경제가 원천기술과 대부분의 응용기술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리용하는 해외기술의 존형구조로 되여있어 기술무역분야에서 해외의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반도체설계를 비롯한 원천기술과 소재, 부분품, 기계설비와 관련기술들을 한정된 몇개 나라들에서 수입하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핵심기술들을 전부 수입에 의존하면서 특정한 나라들에 막대한 자금을 섬겨바치고있으며 당면한 리익확대를 위해 1~2년안에 성과를 낼수 있는 일부 국한된 분야의 응용기술연구와 개발에만 치중하고있는 형편이다.

해외기술의존이 특정한 나라들에 집중되여있는것은 이미전부터 일부 선진국들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여 산업을 건설하고 그 나라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가공하여 수출하던 산업구조를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대기업들의 해외기술의존도가 중소기업들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도 문제라고 한다.

2019년에 대기업들의 해외기술수입은 전체 기술수입의 56.6%를 차지하였다.

해외기술의존도는 전기전자, 정보통신과 같은 특정한 부문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있다. 전기전자부문의 기술무역적자는 2019년에만도 40억 9 000만US$로서 기술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천기술이 없으면 언제 가도 외국기업의 요구에 휘둘리우는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기업들이 아무리 수출을 늘여도 종당에 리익을 얻는것은 외국기업들뿐이다, 계속 원천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다가는 다른 나라들에 단물을 다 뽑히우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갈등과 화목

남조선에서 세대간 갈등이 우심해지면서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부각되고있다고 한다. 특히 주요 정치적문제들을 놓고 청년층과 중년층, 로년층간 리해관계와 견해의 불일치로 하여 그들사이의 갈등이 매우 심각해지고있다.

문제는 세대간 갈등이 각 분야에서의 빈부갈등, 리념갈등, 지역갈등, 남녀갈등 등과 함께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한층 치렬해지는 속에 전통적인 륜리도덕관계, 가족관계까지 크게 흔들어놓고있는것이다.

모든것이 돈에 의해 좌우되는 남조선사회에서는 리기적인 타산과 목적으로 인한 학대와 구타, 살인행위가 한 가정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있는것이 남조선사회라면 공화국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끄는것이 국풍으로 되고있다.

고결한 도덕의리심과 후더운 인정미를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사람들,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울고웃으며 사랑과 정을 두터이 해가는 공화국인민들이다.

공화국에서는 처녀, 총각들이 영예군인의 한생의 길동무가 되여주고 친혈육의 정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훌륭히 키워주는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의 친자식이 되여 따뜻한 정을 부어주는 아름다운 소행이 평범한것으로 되고있다.

얼마전 한 영예군인작가의 안해인 서재렬로인의 생일날에 있은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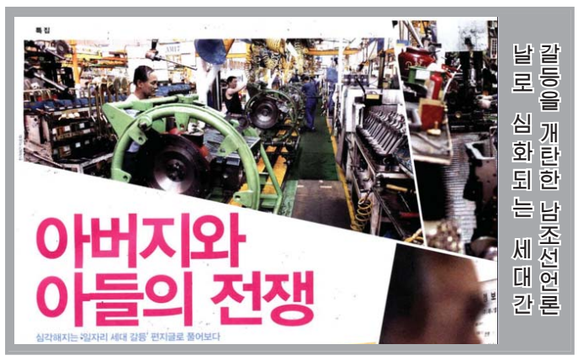
남편이 세상을 떠난지 오래고 슬하에 친자식이 없는 로인이였지만 생일날에는 애젊은 청년들로부터 머리흰 장령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정담아 《어머니》라 부르며 생일을 뜨겁게 축하해주었다.

서재렬로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80고령인 나에게 혈육이라고는 한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외롭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머리에 백발을 인 오늘까지 활력에 넘쳐 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은것은 여기에 모인분들을 비롯한 고마운 사람들이 늘 관심해주고 떠밀어주고 혈육의 정을 기울여준 덕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이 공기처럼 흐르는 공화국과 세대간 갈등이 날로 확대되여 증오가 더 큰 증오를 낳는 남조선사회의 판이한 현실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갈등을 개탄한 남조선언론 날로 심화되는 세대간

친혈육의 정으로 로세대들을 따뜻이 돌봐주는 공화국의 청년들

독자문답

재도이칠란드동포 서일호선생이 제기한 질문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란 무엇인가?

공화국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사회주의건설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을 비롯한 본신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는 우월한 교육체계이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에서 리탈되지 않고 공장대학을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고등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생산은 생산대로 하면서 근로자들의 전반적 문화지식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다는데 그 우월성이 있다.

첫 공장대학이 출현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이 창설되여 공화국에서는 희망하는 사람들은 일하면서도 공부를 계속하고있다.

이처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람들을 힘있는 창조적능력의 소유자로 키워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우월한 교육체계이다.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새 기술창조와 혁신의 앞장에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한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많이 서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펼쳐진 원격교육망을 통한 교육체계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 교육체계이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의 원격교육망을 통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들을 리용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실현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금강산화장품전시장에서

민기를 모으는 특색있는 화장품봉사

금강산화장품전시장에서 특색있는 화장품봉사를 진행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특히 이곳에서 운영하고있는 화장방법보급실에서는 찾아온 손님들에 대한 피부측정봉사, 레이자치료봉사, 치료미안봉사를 진행하고있다.

또한 피부의 수분함량, 피지선분비상태 등의 지표를 가지고 현재의 피부상태를 진단한 다음 피부류형과 피부상태에 따르는 화장품을 선택해주고있다.

피부세척, 피부마싸지, 피부영양 및 치료의 배합으로 여드름이나 뾰두라지 등을 비롯한 피부의 로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피부의 탄성과 충분한 영양을 보장하는 치료미안도 해주고있다.

이와 함께 조선의 특산인 개성고려인삼과 30여종의 진귀한 천연식물에서 얻은 추출물들과 나노기능성재료들을 첨가하여 만든 화장품들도 인기를 끌고있다.

이곳 전시장의 《금강산》 화장품들은 국가품질인증과 GMP인증을 받은 제품들로서 높은 품질과 완벽한 위생안전성을 담보하고있다.

과학적인 진단과 화장방법에 토대한 적합하고 친절한 봉사, 이것이 전시장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다.

하기에 이곳에서 봉사를 받고나면 부드럽고 맑은 피부를 가지게 된다, 금강산의 선녀가 된듯 한 느낌이 든다고 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이곳 리설향책임자는 여기에 전시된 화장품들은 국내원료를 리용하여 만든 질좋은 화장품들이다, 그래서 누구나 《금강산》화장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림 광 훈

청자룡장식붓꽂이

력사유물

청자룡장식붓꽂이는 두마리의 룡과 련당초무늬를 뚫어새김한 고려시기의 푸른자기붓꽂이이다.

길이 7.5cm, 너비 5.2cm, 높이 9cm이다. 옆으로 길게 생긴 붓꽂이는 출렁이는 물결을 형상한 받침대우에 놓여있는데 좌우에 용을 쓰는 룡대가리를 두드러지게 배치하였으며 몸체와 허리부분에는 률동적인 련당초무늬를 뚫어새김하여 장식하였다.

자기의 웃부분에는 붓을 꽂기 위한 세개의 동그란 구멍이 있다.

고르롭게 입혀진 은은한 유약은 비색으로 나타나있으며 그것이 룡조각, 화려한 련당초무늬 등과 서로 조화되여 유물의 품위를 한결 돋보이게 한다.

자기의 모든 요소들은 붓을 꽂기 위한 문방구의 실용적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되였을뿐 아니라 돌려새김, 뚫어새김, 선새김 등 여러가지 조각장식수법들을 효과적으로 배합하여 정교로운 공예미를 나타내고있다.

청자룡장식붓꽂이는 그 구성이 기발하고 장식수법이 뛰여난 고려시기의 대표적인 유물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향약집성방》

《향약집성방》은 15세기초엽까지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고려의학의 성과들과 민간에서 만든 약재로 병을 치료한 경험을 종합한 고려의학전서이다.

당시 이름난 고려의사들이였던 로중례, 박윤덕 등이 1431년에 편찬에 착수하여 총 85권으로 만든 다음 1433년에 출판하였다.

《향약집성방》에는 민간료법을 비롯한 다양한 치료방법이 많이 씌여져있는것이 특징이다.

또한 민간에서 만든 약재로 구성된 처방을 기본으로 하고 개별적인 고려약에서는 누구나 약초를 알고 리용할수 있도록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을 써주었으며 주요한 약재들은 산지까지 밝혀주었다.

《향약집성방》은 당시까지 달성한 의학성과들을 종합하여 편찬하고 그 편찬에 리용된 책들의 이름과 내용도 밝혀놓았다.

이 책은 그 실용적 및 문화사적가치가 높은것으로 하여 《의방류취》, 《동의보감》과 함께 우리 민족의 3대고려의학고전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본사기자

민요해설

《쾌지나 칭칭 나네》

《쾌지나 칭칭 나네》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창작된 남해안지방의 민요이다.

쫓겨가는 왜적들의 몰골을 풍자조소하며 승리한 기쁨을 환희적으로 노래한 륜무가요이다.

노래와 춤이 결합되여있는 가무형식의 작품으로서 민요로서만이 아니라 민속무용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가사는 력사적시기와 지방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있으나 왜적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승리한 기쁨과 생활속에서 느끼는 랑만적인 감정을 노래한것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노래의 제목에서 《쾌지》라는 말은 후련하고 통쾌하다는 뜻이며 《칭칭》은 당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적장가등청정을 조소하여 부른 말이며 《나네》는 쫓겨간다는 의미로서 《쾌지나 칭칭 나네》는 왜적장 청정이 쫓겨가니 후련하고 통쾌하다는 뜻을 담고있다.

먼저 선창자가 노래를 부르면 그것을 받아 여러 사람들이 원을 짓고 춤을 추며 돌면서 후렴구를 합창하는 식으로 불렀다.

음악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흥겹고 류창한 선률로 시작되여 점차 빨라지는 장단의 흐름을 타고 격동적인 정서로 고조를 이루는것이다.

춤에서는 어깨춤동작과 손벽장단, 발장단 등이 특징적인 동작으로 되여있다.

집단적인 륜무가요 《쾌지나 칭칭 나네》는 남해안지방 인민들의 생활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오래동안 전해져온 특색있는 작품이다.

본사기자

콤퓨터사용자들을 위한 음식물섭취

장기간의 콤퓨터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자면 음식물을 합리적으로 섭취하고 제때에 영양보충을 하여야 한다.

1. 하루 세끼 음식물을 잘 배합하여 섭취하여야 한다.

아침식사때 영양분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충분한 열량을 축적해야 한다. 점심에는 콩류 및 콩제품 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어야 한다. 저녁식사는 기름기가 없는것이 좋다.

2. 눈보호작용을 하는 음식물을 선택하여야 한다.

콤퓨터화면을 오래 주시하면 망막에 있는 빛수감물질인 로돕신의 기능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비타민 A, C, β-카로틴이 풍부히 들어있는 음식물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3. 칼시움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콤퓨터앞에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와 경추, 어깨, 팔굽, 손목 등 골격근육계통질환이 초래될수 있다. 그러므로 칼시움이 많이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물을 섭취하는것이 좋다.

4. 매일 록차를 마셔야 한다.

차잎에 들어있는 기름질다당류는 인체조혈기능을 개선한다. 기름질다당류가 몸안에 들어가면 유기체의 비특이적인 면역력이 강화된다. 차잎은 또한 방사선피해를 방지한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시작이 절반이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는것이 그 일을 절반 한것과 같다는 뜻으로서:

① 어떤 일이든지 시작만 하면 성공할수 있는 가능성이 벌써 절반은 내다보인다는것을 두고 비겨 이르는 말.

② 무슨 일이든 시작이 매우 중요함을 비겨 이르는 말.

❖ 만리길도 한걸음에서 시작된다

만리나 되는 머나먼 길도 첫시작은 한발자국을 떼는것으로부터 된다는 뜻으로서:

① 결과가 큰일도 첫시작은 그리 대단치 않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② 아무리 큰 인재도 처음에는 한갓 평범한 보통사람에 불과했으나 애써 노력한 까닭에 그처럼 큰 인물이 되였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길떠나기는 쉬워도 걷기는 힘들다

사람이 길을 떠나기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막상 걷고보면 몹시 힘들다는 뜻으로서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는 쉬워도 그 일을 매듭짓기는 보통 힘들지 않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룡대가리에 뱀꼬리

첫시작은 굉장히 요란하나 끝은 흐지부지되여버리는것을 두고 비겨 이르는 말.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